

목장 나눔지

새생명축제 준비(6) : 이토록 놀라운 은혜

요나 3:1-10

<한 주간 삶 돌아보기> 감사한 내용, 응답받은 기도 등을 나누어봅시다.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하기>

<말씀묵상>

“내가 원해서 이 세상에 나온 것 아니듯이 나의 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니라. 내가 원해서 지금까지 아픈 것 아니듯이 나의 지혜로 얻은 것 아니라 / 내가 원해서 그분이 날 사랑한 것 아니며 나의 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 아니라 / 내가 원해서 그분이 날 부르신 것 아니며 나의 지혜로 나 된 것 아니라 /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이윤화). 요나서 3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죄인을 변화시키고 부흥을 주실까요?

1. 하나님은 특별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 1) **부흥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갑작스럽게 찾아오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진정으로 회심치 못한 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던 껍데기 신앙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신자들의 메마른 심령에 은혜의 폭포수가 흘러옵니다. 그리고는 가정과 이웃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무 단순하지만 명료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요나가 전한 말씀은 한 문장이었지만,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지 도시 전체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3:5-8).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 2) **하나님은 약하고 부족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내가 가야 합니다. 내가 전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전하는 말 속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행4:31).

2.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신다.

- 1) **참된 믿음과 회개는 하나님의 공화를 기대한다.** 참된 믿음과 회개 안에는 소망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공화와 용서를 베푸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9절, “...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이들은 용서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자신이나 다른 것에 걸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공화를 소망하며 기뻐하며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기쁨이 동반됩니다. 참된 회개는 자신의 죄를 보며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는 것입니다. 나아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공화를 보며 한없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2)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진실된 회개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이 금식하고 굶은 배움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 것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용서하셨던 것입니다(10절).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듣고 찬송하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그런 외적인 행동 안에 담긴 “우리의 마음과 삶의 변화”입니다.

3. 하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셨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이 진실로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셨습니다(9-10절). 뜻을 돌이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처럼 실수하셨고 후회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민23:19).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본 표현 방식입니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뜻을 바꾸신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성이 40일이 지나면 무너지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회개하면 용서하고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신 방식에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합니다. “뜻을 돌이켰다”라는 단어는 “내적으로 고난을 받다. 슬퍼하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악인들의 죄를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이 받아야 할 죄의 심판을 하나님이 대신 받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여기서 위대한 은혜의 복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심판과 진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려야 할 죄의 심판을 자신이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경험하고, 이 은혜의 복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나눔질문>

1. 신앙생활이 건강하다는 표시 중에 하나는 진실된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악한 삶의 방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회개할 때 어떤 격려와 소망을 주는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보기를 원하시는 것(버려야 할 악한 것)이 무엇인지 나누어봅시다.
2. 오늘 말씀에서 가장 마음에 와 닿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나누어봅시다.

<함께 기도>

1. 오늘 나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2. 목원들의 기도제목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3. 전도 대상자(가족 포함)의 회심을 위해 기도합니다.
4. 부흥을 주셔서 주일예배와 주중기도회, 목장모임, 주일학교, 서머나아카데미, 부서 및 전도활동을 통해 교회가 성장하도록 기도합니다.
5. 10월15일(주일)에 있을 새생명축제를 잘 준비해서 영혼구원과 영적회복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